

# 한 총리 “국민통합·협치 앞장설 것”

### 야당 국정운영 동반자로 존중 민생문제 해결 대응방안 마련 현장·창의·소통 내각 돼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인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국민의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했던 한 총리는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불가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의결해주는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민간과 시장의 역량이 충분히 커졌다”며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

하겠다”며 청년 세대 지원, 인재 양성, 지역주도 균형발전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 잘하는 유능한 책임 정부가 돼야 한다”며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는 ‘더 확실한 현장 내각’, ‘더 창의적인 내각’, ‘더 소통하는 내각’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저는 오랫동안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질과 역량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제도와 관행을 넘어 공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노력하면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1970년부터 공직생활을 한 한 총리는 “한평생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지금의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는 일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무위원들과 파이팅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왼쪽 다섯번째)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각 부처 장·차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 성사될까 강동완 제안에 박해자 화답...정성홍 수용 여부 불투명

광주시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가 제안돼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동완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23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해자, 정성홍 후보에게 시민주주추진을 위해 3인이 참여하는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은 정치를 위하거나 이념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현재 5인 경쟁 체제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적극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단일화 시기는 26일까지이며, ▲단일화 방식은 공신력있는 설문지형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한다 ▲3자간의 합의에 의한 다른 공식적인 조사 방법이 있다면 이를 택한다 등 핵심 조건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3자간 단일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다수의 지지로 광주정신을 살리고 미래교육을 완성할 수 있는 교육감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설명했다.

박해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단을 내려준 강동완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전부터 저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일관성 있게 요구했다”며 단일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교육의 자랑스런 전진을 위해 함께 단일화 대열에 나서자”고 말했다.

그는 “강동완 후보와 함께 이제 정성홍 광주시교육감 후보도 광주시민의 민주개혁 세력 단일화에 대한 답변을 달라”며 “엄중한 시대적 요구의 부름에 대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성홍 후보를 광주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단일화한 추진위의 한 인사는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단일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소속 의원 전원 사전투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5월 27~28일)를 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이 광장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을 활용해 투표를 제고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치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지지층의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먼저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6·1 지방선거 라운지 강기정 “광산 성장 동력은 미래모빌리티, 송정역세권 개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23일 광주 광산구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앞에서 ‘찾아가는 정책소풍’을 열고 광주 신(新)경제지도 ‘광산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광주 광산의 성장 동력으로 ‘자율주행차’와 ‘송정역세권 개발’을 꼽았다. 강 후보는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소재부품 클러스터 ▲자율주행 도심항공 실증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송정역세권 개발과 송정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호남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호남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송정역 1일 이용객수는 평일 1만7000명, 주말 2만5000명에 달한다”며 “송정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하고, 송정역시장, 투자선도지구,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를 연계한 융복합단지 및 상권 활성화가 광산구의 새로운 미래다”라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주기환 후보, “자전거도로 보수·확충, 보행공간 확보”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23일 “광주의 노후화된 자전거 도로를 재포장하고, 신규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를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인공밀집 지역의 자전거 도로로는 양 옆에 인도를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자전거 동호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면서 “조기이나 산책하는 사람들

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전거 도로 폭도 확대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도로 보수·확충은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지역문화와 관광권을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문현철 후보 “기본소득당에 투표해 달라”

문현철 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는 25일 “진보 정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사회를 위한 대전환과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상식을 말하는 기본소득당에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날 백운동 교차로에서 출근길 아침 인사를 통해 이같이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어 남광주시장을 방문하고, 푸른길 공원에서 산책하는 유권자들을 만나는 등 소통을 넓혀가며

바닥 민심 훑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광전터미널로 이동해 퇴근길 인사를 하면서 또 한번 기본소득당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24일 용혜인 국회의원과의 함께 전남대 후문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임택 “동구,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겠다”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23일 “동구를 맑고 깨끗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공무원 무등산을 포함하고 있는 동구는 환경, 생태 등 기후위기 시대 중요한 자연 자원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생활쓰레기 감량, 녹색도시 조성, 북재빨리 재활용, 탄소중립 실천 학교 운영,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들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기후행동실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대책 수립과 실행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녹지공간 확대 ▲자원순환 에코센터 설립 ▲너릿재 일원 생태환경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 민주당 원팀 가능 지지 호소

신우철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가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로부터 지지선언을 얻어낸 뒤, 민주당 ‘원팀’ 선거가 가능해졌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에 도전했던 김신·신영균·지영배 후보는 23일 신우철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신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선택한 국민들의 뜻을 존중,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지·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우철 후보는 이날 “세 후보자의 어렵고 큰 결정으로 민주당 ‘원팀’이 만들어졌으니 뜻을 모아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 80억, 호텔/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 22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오천경매. 010-3605-5000